

2014년 지방직 9급 해설지

1. 단위별 출제 경향

단위	출제 문제수	문제의 내용
I. 한국사 서론		
II. 선사~초기국가	2문제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 여러나라의 성장(부여, 고구려)
III. 고대사(총3문제)		
1. 정치사	2문제	고대의 금석문(중원고구려비), 발해사(무왕, 선왕)
2. 경제사	1문제	민정 문서
3. 사회사		
4. 문화사		
IV. 고려사(총2문제)		
1. 정치사	1문제	고려의 대외관계(순서)
2. 경제사		
3. 사회사		
4. 문화사	1문제	의천의 활동
V. 조선사(총6문제)		
1. 정치사	2문제	임궽정의 활동(명종), 봉당정치사(예송논쟁)
2. 경제사	1문제	영조 시기의 경제 정책(균역법)
3. 사회사		
4. 문화사	3문제	이항(성학십도),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회화), 의궤
V. 근대사	3문제	강화도 조약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신민회, 근대적 개혁의 순서(갑신정변~광무개혁)
VI. 일제시대사	3문제	유교구신론(박은식), 무장독립전쟁(순서), 의열단
VII. 현대사	1문제	김구(삼천만동포에게 읍고함)

2. 문제 배분과 총평

① 문제 배분

- ㄱ. 전근대사 13문제, 근현대사 7문제로 배분되었다.
- ㄴ. 고려사의 비중이 낮았고(2문제), 상대적으로 근현대사 파트가 많았다(7문제).

② 총평

- ㄱ. 2014년 국가직 9급에 비해 쉬운편이고, 생소한 용어나 사건이 거의 없었다.
- ㄴ.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한번씩 언급되었던 것이고, 절반 이상의 문제들의 난이도가 하급이었다.
- ㄷ. 그나마 까다로웠던 문제는 11번, 13번, 17번 문제로 보인다. 11번 문제-삼국시대 금석문을 물어보는 문제로 표현을 약간 꼬아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중원고구려비 건립의 주체는 고구려, 신라가 표현한 것이 아님). 13번 문제-해외 유출 문화재 찾기, 7번 문제-명종 때 임궽정의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다소 생소했으나, 2012년 국가직 7급에서 한 번 기출되었던 내용이어서 큰 무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ㄹ. 이런 난이도의 문제라면 무조건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을 법한 문제였다.

1. 다음 유물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 충북 청주 산성동 출토 가락바퀴
- 경남 통영 연대도 출토 치레걸이
- 인천 용진 소야도 출토 조개 껍데기 가면
- 강원 양양 오산리 출토 사람 얼굴 조각상

- ① 한자의 전래로 붓이 사용되었다.
- ② 무덤은 일반적으로 고인돌이 사용되었다.
- ③ 조, 피 등을 재배하는 농경이 시작되었다.
- ④ 반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화폐가 사용되었다.

정답: ③ / 난이도 하

가락바퀴는 신석기 시대의 직조 수공업을 보여주는 유물이고, 치레걸이·조개껍데기 가면·흙으로 만든 인물상 등은 신석기 시대의 예술활동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③ 신석기 시대에 최초로 농경이 시작되었는데, 주로 조와 피 등의 잡곡류를 재배하였다.

<문제해설>

- ①, ④ 초기 철기시대에 중국과의 교류 사실을 입증하는 유물이다.
- ②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무덤 양식이다.

2. 통일신라시대 민정문서(장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구, 가호, 노비 및 소와 말의 증감까지 매년 작성하였다.
- ② 토지에는 연수유전답, 촌주위답, 내시령답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사람은 남녀로 나누고,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④ 호(戶)는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① / 난이도 하

민정문서에는 토지, 인구, 나무와 소와 말 등의 수와 증감을 기록한 문서로 통일신라시대에 국가가 각 촌락의 생산 자원을 철저하게 관리하였음을 추정하게 해준다. 토지는 연수유전답, 촌주위답, 내시령답, 관모전답, 마전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인구는 남녀로 구분함과 동시에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였고, 개별 호(戶)의 인구수에 따라 상상호~하하호의 9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문제해설>

- ① 통일신라 시대에 서원경 부근의 4개 지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민정문서는 3년 마다 촌주가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3.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는 도(道)를 구하는 데 뜻을 두어 덕이 높은 스승을 두루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진수대법사 문하에서 교관(敎觀)을 대강 배웠다. 법사께서는 강의하다가 쉬는 시간에도 늘 “관(觀)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經)도 배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훈시하였다. 내가 교관에 마음을 다 쏟는 까닭은 이 말에 깊이 감복하였기 때문이다.

- 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②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강조하였다.
- ③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였다.
- ④ 정혜쌍수로 대표되는 결사운동을 일으켰다.

정답: ④ / 난이도 하

제시문은 고려 중기 승려인 의천의 강론을 정리한 「대각국사 문집」의 일부분이다. 제시문의 내용에서 ‘교관’이라는 내용을 통해 교관겸수를 강조한 의천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의천은 국청사에서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고, 이론인 교학과 실천인 참선의 양면적인 수행을 강조하였으며,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문제해설>

④ 정혜쌍수와 돈오점수 및 수선사 결사운동은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 시기의 승려인 지눌의 주장 및 활동이다.

4. 다음 활동을 전개한 단체로 옳은 것은?

평양 대성학교와 정주 오산학교를 설립하였고 민족 자본을 일으키기 위해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세웠다. 또한 민중계몽을 위해 태극서관을 운영하여 출판물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할 목적으로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추진하였다.

- ① 보안회
- ② 신민회
- ③ 대한 자강회
- ④ 대한 광복회

정답: ② / 난이도 하

1907년에 창립된 신민회는 대성학교(평양, 안창호)와 오산학교(정주, 이승훈) 설립을 통한 교육 구국운동을 추진하였고, 태극서관 및 자기회사의 운영을 통한 경제 자립운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신민회는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와는 다르게 장기적인 무장투쟁을 위해 국외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서간도 삼원보에 한인촌인 신한민촌을 만들고, 자치단체로 경학사를 설치하였다.

5.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른바 3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유교계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측에 있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함이고,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변혁하려 하는 정신을 강구하지 않고, 내가 동몽(童蒙)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다는 생각을 간직함이고, 셋째는 우리 대한의 유가에서 쉽고 정확한 법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공부만을 숭상함이다.

- ① ‘조선심’의 개념을 중시하고 한글을 그 결정체로 보았다.
- ②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써서 민족 정신을 고취하였다.
- ③ 실천적인 새로운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구신론을 주장하였다.
- ④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며, 일제의 사찰령에 반대하였다.

정답: ③ / 난이도 하

제시문의 인물은 현재 유교계의 폐단을 3가지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지행합일의 실천성을 강조한 양명학 계열의 유학자였던 박은식의 ‘유교구신론(儒敎求新論)’임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해설>

- ① 문일평은 조선심(朝鮮心)의 결정체는 민중을 위해 만든 훈민정음(한글)이고 세종에 의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실학의 실사구시 정신은 조선심의 재현이라고 평가하였다.
- ② 정인보는 조선역사 연구의 근본을 ‘단군조 이래 5,000년간 맥맥히 흘러온 얼’에서 찾고 조선역사는 곧 한민족의 ‘얼의 역사’임을 강조했다.
- ④ 일제는 1911년 ‘사찰령’을 제정하여 사찰 재산의 처분이나 주지 임명까지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조선 불교를 통제하려 하였다. 이에 33인의 민족 대표중의 한 사람이었던 한용운은 조선불교유신회(1921)를 조직하여 일본의 불교 통제에 맞서 저항하였다.

6. (가)~(다)는 고려시대 대외관계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윤관이 “신이 여진에게 패한 이유는 여진군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아뢰었다.
(나) 서희가 소손녕에게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이요.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경내에 있거늘 어찌 침식이라 하리요.”라고 주장하였다.
(다) 유승단이 “성곽을 버리며 종사를 버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 숨어 엮드려 구차히 세월을 보내면서, 변두리의 백성으로 하여금 장정은 칼날과 화살 끝에 다 없어지게 하고, 노약자들은 노예가 되게 함은 국가를 위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반대하였다.

- ① (가)→(나)→(다)
- ② (나)→(가)→(다)
- ③ (나)→(다)→(가)
- ④ (다)→(나)→(가)

정답: ② / 난이도 중

(가)는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윤관이 별무반의 설치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고려 중기 숙종 때의 자료이다(1104년). (나)는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안용진에서 거란 장수 소손녕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희의 주장으로 고려 초기 성종 때의 자료이다(993년). (다)는 몽고의 1차 침입 이후 무신 집권자 최우가 강화도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을 때, 대몽화친론을 주장했던 유승단이 강화 천도를 반대하는 고려 후기 고종 때의 자료이다(1232년).

7. 조선 후기 예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인예송에서 남인은 조대비가 9개월복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기해예송은 서인의 주장대로 조대비가 효종을 위해 1년복을 입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③ 기해예송은 효종이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3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 ④ 갑인예송은 효종비가 사망하자 조대비가 상복을 1년복으로 입을 것인가, 9개월복으로 입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정답: ① / 난이도 중

예송논쟁은 17세기 중후반 현종 때 효종과 효종비의 사망으로 촉발된 자의대비(조대비)의 상복을 입는 복제 논쟁이었다. 남인과 서인이 주장했던 예론이 대립하였던 것으로, 당시 왕권 강화를 지향했던 남인과 신권 우위를 주장했던 서인의 충돌이기도 했다. 기해예송(효종의 사망시) 때 남인은 3년설을, 서인은 1년설을 주장하면서 대립하였고 서인의 1년설이 채택되었다. 갑인예송(효종비의 사망시) 때 남인은 1년설을, 서인은 9개월설을 주장하면서 대립하였고 남인의 1년설이 채택되었다.

<정답해설>

- ① 갑인예송 때 남인은 1년설(기년설)을 주장하였다.

8. (가)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한 것은?

	(가)	
이인좌의 난		규장각 설치

- ① 당백전으로 물건을 사는 농민
- ② 금난전권 폐지를 반기는 상인
- ③ 전(錢)으로 결작을 납부하는 지주
- ④ 경기도에 대동법 실시를 명하는 국왕

정답: ③ / 난이도 중

이인좌의 난은 영조 때 소론 강경파 이인좌가 경종 독살설을 제기하면서 일으킨 반란으로 영조 때의 사실이다(1728년). 규장각은 정조가 즉위한 다음날에 왕실도서관으로 설치되었다(1776년), 이후 정조 8년(1784년)에 학술 연구 및 정책 연구 기구로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가) 시기는 영조 초기부터 정조의 즉위까지의 시대가 된다. ③ 결작은 영조 때인 1750년에 실시된 균역법으로 부족한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1결당 2두씩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맞다.

<문제해설>

- ① 당백전은 흥선대원군 섭정기인 고종 때 경복궁의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화폐였다(1866년).
 ② 금난전권의 폐지는 정조 때 신해통공으로 법제화된 것이다(1791년).
 ④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대동법을 실시하였던 것은 광해군 때였다(1608년).

9.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 도(圖)와 해설을 만들어 겨우 열 폭밖에 되지 않는 종이에 풀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생각하고 익혀서 평소에 조용히 혼자 계실 때에 공부하소서. 도(道)가 이룩되고 성인이 되는 요체와 근본을 바로잡아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사오니, 오직 전하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여러 번 반복하여 공부하소서.

- ①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 ② 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수미법을 주장하였다.
- ③ 노장 사상을 포용하고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 ④ 성리학을 중심에 두면서도 양명학의 심성론을 인정하였다.

정답: ① / 난이도 중

제시문은 임금 스스로가 성리학의 기본적 요체(심성론과 수양론)를 터득하여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리학의 원리를 도해식으로 정리하여 이황이 선조에게 바친 「성학십도」의 일부이다. 이황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이(理)로서 설명하는 주리론을 강조하였고, 임진왜란 이후 일본 성리학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이기이원론, 예안 향약 주도, 성학십도, 주자서절요 등이 이황과 관계된 내용들이다.

<문제해설>

- ② 이이는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이황과는 달리 주기론을 주장하며, 수미법과 십만양병설 등을 주장하는 등 현실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 ③ 노장 사상을 포용하면서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한 것은 조식이다.
- ④ 이황은 「전습록논변」을 저술하여 양명학을 비판하였던 인물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성리학에 중심을 두면서도 양명학의 심성론을 인정하였던 초기 양명학자들로는 17세기에 활동하였던 조익, 장유, 최명길 등이다. 이러한 흐름은 18세기 초반 강화학파를 형성한 소론 학자였던 정제두로 이어진다.

10. 다음은 일제 강점기 국외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들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지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 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휘 등이 중심이 된 대한 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 ㄷ.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을 비롯한 연합부대는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ㄹ.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 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 ① ㄱ→ㄹ→ㄴ→ㄷ
- ② ㄴ→ㄷ→ㄹ→ㄱ
- ③ ㄷ→ㄴ→ㄹ→ㄱ
- ④ ㄹ→ㄷ→ㄱ→ㄴ

정답: ② / 난이도 중

ㄴ. 대한광복군 정부의 수립(1914) → ㄷ. 봉오동 전투(1920) → ㄹ. 조선혁명군의 영릉가 전투(1932) → ㄱ. 한국광복군의 창설(1940)

11. 삼국시대 금석문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호우총 출토 청동 호우의 존재를 통해 신라와 고구려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 ② 사택지적비를 통해 당시 백제가 도가(道家)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통해 신라가 동해안의 북쪽 방면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충주 고구려비(중원 고구려비)를 통해 신라가 고구려에게 자신을 ‘동이(東夷)’라고 낮추어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 난이도 상

④ 중원고구려비는 장수왕 때인 480년 무렵 건립된 고구려의 비석이다. 이 비석에는 신라를 ‘동이(東夷)’라 하고 신라왕을 ‘동이매금(東夷寐錦)’으로 지칭하며 의복을 하사하는 등의 기록이 보이고 있어 고구려인의 신라에 대한 우월의식 및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엿볼 수 있다. 신라가 자신을 ‘동이’라고 스스로 낮추어 불렀던 것이 아니라 고구려가 신라를 낮추어서 표현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다(중원고구려비 건립의 주체는 고구려이임).

<문제해설>

- ① 호우명 그릇의 밑바닥에 “乙卯年國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杆十(을묘년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호우십)”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명문은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서 나오는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군사적 지원과 더 나아가 일정 기간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는 유물로서 의미가 깊다.
- ② 백제 의자왕 시기에 건립된 ‘사택지적비’는 대좌평(大佐平)을 역임하였던 귀족 사택지적이 말년에 지난날의 영광과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면서 만든 것으로 도교(도가)적 색채관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 ③ 신라 법흥왕 시기에 건립된 울진 봉평 신라비는 과거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경상도 북부(동해안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반역 사건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울령의 반포 사실과 더불어 신라의 정복지 주민에 대한 통치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12. (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변상케 했다.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였다.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시체를 산 위에 버려서 썩게 했다. 친정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했다.

(나)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 이를 천군이라 했다. 여러 국(國)에는 각각 소도라고 하는 별읍이 있었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다른 지역에서 거기로 도망쳐 온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않았다.

- 삼국지 -

<보 기>

- ㄱ. (가)-왕 아래에는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었다.
- ㄴ. (가)-농사가 흉년이 들면 국왕을 바꾸거나 죽이기도 하였다.
- ㄷ. (나)-제천 행사는 5월과 10월의 계절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 ㄹ. (나)-동이(東夷)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라 기록되어 있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③ / 난이도 하

(가)는 1책 12법과 더불어 음란죄와 투기가 심한 부인을 처형하는 풍습이 있었던 부여와 관련된 자료이다. (나)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소도를 다스리는 제정분리의 특징을 가진 삼한에 대한 설명이다. ㄴ-부여에서는 흉년이 계속하여 들 경우 제가들이 국왕을 축출하거나 죽였다. ㄷ-5월 수릿날과 10월 계절제의 제천행사는 삼한의 풍습이다.

<문제해설>

ㄱ-상가는 제가회의의 의장이고, 고추가는 상층의 대가들을 지칭하는(적통대인) 것으로 고구려의 관직명이다.
ㄹ-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라고 묘사된 것은 부여이다.

13. 다음 중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 ① 신윤복의 미인도
- ② 안건의 몽유도원도
- ③ 정선의 인왕제색도
- ④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정답: ② / 난이도 중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세종 29년(1447) 4월 20일에 도원을 여행하는 꿈을 꾸 후 그 내용을 안건에게 명하여 그리게 한 것으로 3일만에 완성되었다. 이 작품은 현재 일본의 덴리대학교(天理大學)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반출 문화재이다. 해외유출 문화재라는 독특한 주제의 문제여서, 다소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조선 태종 때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 지도도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일본 류쿄쿠 대학교).

<문제해설>

① 간송 미술관 소장, ③ 리움 미술관 소장,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4. 조선시대 의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왕실의 행사에 사용된 도구, 복식 등을 그림으로 남겨 놓았다.
- ② 이두와 차자(借字) 및 우리의 고유한 한자어(漢字語)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 ③ 왕실 혼례와 장례, 궁중의 잔치, 국왕의 행차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기록하였다.
- ④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는 신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어람용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

정답: ④ / 난이도 중

조선시대 의궤는 왕실과 관청의 중대한 행사의 전말(행사 준비 과정, 절차, 참여 인원, 비용, 행사 관련 그림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기록물이다. ① 의궤는 행사에 사용된 도구, 복식, 행사 장면 등을 그림으로도 기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② 의궤에는 차자(借字, 한자를 빌려와 우리말로 표기하는 것)의 대표적 형태인 이두식 표현도 포함되어 있어 국어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③ 의궤는 왕실의 혼장례, 궁중의 잔치, 행차, 중요 건물의 완성, 무기의 제작 등 다양한 국가적 행사의 전말을 후세에게 표준으로 남기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문제해설>

④ 의궤는 보통 국왕만이 열람할 수 있는 어람용 의궤와 일반 의궤(의정부 및 예부 등과 사고에 비치)로 구분된다.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 침입한 프랑스군이 외규장각에서 고급 어람용 의궤 등 297책을 약탈하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하다가, 2011년 5월 대한민국으로 5년 임대의 형식으로 반환되었다.

15.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의 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다.
- ② 한국 민주당을 결성하여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③ 미국에서 귀국한 후 독립 축성 중앙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④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정답: ① / 난이도 하

제시문은 1948년 2월 10일, 유엔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안의 결정이 임박한 상태에서(유엔소총회의 의결은 2월 26일) 김구가 발표한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란 성명서이다. ① 김구는 1948년 2월 초에 북측에 남북지도자 회담의 개최를 요구하였고, 그 해 3월 북측에서 이를 수락하여, 4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에 김규식과 더불어 참여하였다.

<문제해설>

② 송진우와 김성수, ③ 이승만, ④ 여운형에 대한 설명이다.

16. (가), (나) 국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대조영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나)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에서는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고 불렀다.

<보 기>
ㄱ. (가)-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ㄴ. (가)-장문휴가 수군을 이끌고 당(唐)의 산둥(山東) 지방을 공격하였다.
ㄷ. (나)-‘건흥’ 연호를 사용하고,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다.
ㄹ. (나)-당시 국왕을 ‘대왕’이라 표현한 정혜공주의 묘비가 만들어졌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③ / 난이도 중

(가) 8세기 초반 발해 무왕의 업적이다. (나) 9세기 전반 발해 선왕의 업적이다. ㄱ-무왕은 흑수말갈 문제 및 국왕의 동생인 대문예의 송환 문제로 당나라와 대립하다가 장문휴로 하여금 산둥(덩저우) 지방을 공격하게 하였다. ㄴ-선왕의 연호는 건흥(무왕은 인안, 문왕은 대흥)이었고,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를 정비하였다.

<문제해설>

ㄱ-발해는 ‘동모산(고왕, 대조영)→중경(무왕이라는 설과 문왕이라는 설로 갈라짐)→상경(문왕)→동경(성왕)’의 순으로 천도하였으므로,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한 국왕은 성왕(5대왕, 대화여) 때의 일이다.

ㄷ-문왕의 둘째 딸이 정혜공주이고, 넷째 딸이 정효공주인데 정혜공주의 묘비에는 문왕을 ‘대홍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이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나타난다.

17. 다음에서 서술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도적 무리는 조선 전기 도적 가운데 그 세력이 가장 컸으며, 명종 14년부터 명종 17년까지 주로 활동하였다. 이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은 백정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공물이 운송되며 사신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농민들의 부담이 무거웠던 역촌(驛村) 지대 및 주변에 갈대밭이 많은 곳 등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곳을 거점으로 약탈·살인·방화를 서슴지 않았다.

- ① 광대 출신으로 승려 세력과 함께 봉기하여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 ② 허균이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정치의 부패상을 비판한 소설을 썼다.
- ③ 황해도로 중심으로 경기·강원·평안·함경도 주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 ④ 대동계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새 왕조를 세우려는 역성 혁명을 꿈꾸었다.

정답: ③ / 난이도 상

16세기 중후반 명종 때 문정왕후 및 그의 동생인 척신 윤원형(소윤)이 권력을 잡아 정치기강 및 수취질서가 문란해졌고, 이 결과 농민 몰락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유망한 농민들 중에 도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 오래 지속된 난은 1559년에서 1562년에 걸쳐 지속된 임꺽정의 난이었다. 이 난의 원인은 황해도 일대의 지역민이 공동으로 이용하였던 갈대밭을 권세가들이 개간을 구실로 소유권을 장악함으로써 야기되었다. 백정 출신의 임꺽정은 여러 패거리(상인, 대장장이, 노비, 사림, 아전 등)들을 규합하여 황해도 구월산 지역에서 부자 및 관리들의 재물을 털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의협활동을 했던 도적으로 유명하며, 점차로 경기·평안·강원도에 걸쳐 활동 무대를 확대하였다. 성호 이익은 조선의 3대 도적으로 임꺽정, 홍길동, 장길산을 꼽았다.

<문제해설>

- ① 조선 후기 숙종 때 광대 출신이었던 장길산은 승려 및 서얼들과 함께 봉기하여 정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 ② 홍길동은 연산군 시기에 활동했던 유명한 도적으로 허균이 훗날 홍길동전의 모델로 삼아 홍길동전을 저술하였다.
- ④ 조선 후기 선조 때 정여립은 선조의 미움을 받아 전라도 진안 지역으로 낙향하여 대동계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천하공물설(천하는 만인의 것)에 기반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려 하였다. 이 사건을 발단이 되어 정여립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동인 강경파들이 1,000여명 정도 희생된 기축옥사가 발생한다.

18. (가), (나)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조약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가) ○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연해 중에서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택하여 지정한다.
- (나) 이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 ① (가)는 ‘운요호 사건’ 이후 체결된 것이다.
② (가)에는 일본 상인의 내지 통상권에 대한 허가가 규정되어 있다.
③ (나)는 갑신정변 이후 체결된 것이다.
④ (나)에는 천주교의 포교권 인정이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① / 난이도 하

(가)는 1876년 2월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자주국 규정, 3개항의 개항, 해안측량권, 치외법권 등을 규정)이다. (나)는 임오군란 직후인 1882년 8월월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속방 규정, 내지통상권의 사실상 허용 등)이다. ① 일본은 1875년에 발생한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그 이듬해 1월 강화도를 점령한 후, 조선에 통상조약의 체결을 요구하였고, 이 결과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문제해설>

- ② 강화도 조약(정확히 표현하면 조·일수호조규부록)에서는 개항장의 10리 이내로 무역범위를 제한한 거류지 무역이 규정되어 있고, 내지 통상권이 사실상 허가가 된 것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규정되었다.
③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임오군란이 진압된 이후 체결된 것이고, 갑신정변 이후 체결된 것은 한성조약 및 텐진조약이다.
④ 천주교에 대한 포교의 자유가 규정된 것은 1886년에 체결된 조·불수호통상조약이다.

19. 다음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던 애국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며,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는 바이다.

- ① 이재명이 이완용을 습격해 중상을 입혔다.
- ② 나석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③ 장인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 ④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 역에서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정답: ② / 난이도 중

제시문은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으로 의열단이 추구하던 암살과괴운동의 논리와 이념적 지표를 당당히 천명한 것이었다(1923. 1). 대표적인 의열단의 의거로 박재혁(부산경찰서 투탄), 김익상(총독부 투탄), 김상옥(종로경찰서 투탄), 김지섭(일본 황궁에 투탄 시도), 나석주(식산은행과 동척에 투탄) 등을 꼽을 수 있다.

<문제해설>

- ① 이재명은 총리대신 이완용을 명동성당 부근에서 단도로 공격하였으나 중상만 입히고 실패하였다(1909. 12).
- ③ 장인환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역에서 친일적 미국인인 스티븐스를 저격하여 죽였다(1908. 3)
- ④ 단지동맹(斷指同盟)이라는 비밀결사 조직의 단원이었던 안중근은 한국의병의 참모총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고 주장하였다(1909. 10).

20. 다음은 근대 개혁 방안에 관한 자료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내시부를 없애고 그 가운데서 재능있는 자가 있으면 뽑아 쓴다.
- ㄴ.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뒤섞지 아니한다.
- ㄷ.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한다.
- ㄹ.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은 인민에게 공포한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ㄹ→ㄷ
- ③ ㄴ→ㄱ→ㄷ→ㄹ
- ④ ㄴ→ㄱ→ㄹ→ㄷ

정답: ② / 난이도 중

ㄱ-갑신정변 때의 폐정개혁안(1884) → ㄴ-2차 갑오개혁 때의 홍범 14조(1894) → ㄹ-독립협회측과 정부가 합의한 헌의 6조(1898) → ㄷ-대한제국의 대한국국제(1899)